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Money of the College Students after and before IMF Economic Crisis

김정훈 · 동환숙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Kim, Jung Hoon · Dong, Hwan Suk
College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money among college students after and before IMF economic crisi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consists of 389 students in the year of 1995 and 112 students in the year of 2000 in Wonkwang univers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oney attitudes and behaviors scale drew four factors such as; power, obsession, money management and pleasure. 2) Male students have a tendency more likely than females not only to look upon money as power but also to have an obsession before IMF economic crisis. But gender differences were disappeared after. 3) In comparison of the before and after IMF economic crisis, the behavior value in reference to money is generally increased. The social power and the cognitive attitude like an obsessional increased smaller than that of a practical such as money management or pleasure. The pleasure is raised the largest. 4) The level of attitudes and behavior for money management is raised the most for female students while, the value of the pleasure has the greatest increase for male students rate.

Key words : economic crisis, money attitudes and behaviors of students

I. 문제제기

돈은 인간의 경제 행동을 유발하는 촉매제로 활용되기도 하고, 경제생활과 관련한 직접적인 매개변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돈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이에 대한 영향 변수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Bailey 등, 1994; Furnham, 1984; Medina 등, 1996; Tang, 1992; Yamauchi & Templer, 1982). 특히 돈에 대한 태도나 행동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아래 비교 문화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상황이 개인의 돈에 대한 가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Bailey &

Corresponding author : Kim, Jung Hoon
Tel : 063) 850-6650 Fax : 063) 850-7301
E-mail : osu@wonkwang.ac.kr

Lown, 1992; Bailey 등, 1994; Lim & Teo, 1997; Medina 등, 1996; Wilhelm 등, 1993).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구제 금융 지원이라는 큰 경제적 위기로 인해 실직과 소득하락, 심리적 공황을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IMF 구제 금융 지원은 저 성장, 고 물가, 장기 경제 침체, 단기 물가 폭등, 실업 및 소비 위축 등의 고통과 긴축을 수반하며, 국민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중 실업의 확대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 가정의 경제적 환경 변화는 가정 생활에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갈등 등 심리적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다(강이주·성영애, 1999).

IMF 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0.5%가 IMF 체제 이후 가정 형편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보호원, 1998). 특히 IMF이후 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은 저소득 계층이며, 이는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소득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사회의 경기 변동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소비지출이 변동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소연경, 2000). 또한 IMF이전과 이후의 소비 지출현황을 파악한 연구(곽인숙 등, 1999; 두경자, 1999)에서도 경제 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져 소득변화에 민감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외부 환경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IMF 체제의 경제적 위축기라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개인 및 가계에 경제적 압박이라는 큰 혼란을 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보여진다.

이렇듯 1998년 IMF 구제 금융 지원 상황을 겪으면서 지속된 경제적 곤란은 개인과 가계,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돈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다룬 연구들(강이주·성영애, 1999; 곽인숙 등, 1999; 두경자, 1999)에서는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가계관리자인 주부들이 소

득 감소에 따라 어떠한 대처 전략을 쓰며, 가계 소비 지출의 변화 추세는 어떠한가를 다룬 연구들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기성세대와는 달리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풍요와 여유속에서 성장해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대학생들은 현재는 소비 활동이 주 영역이지만 미래의 경제 주체이며, 사회의 주역으로서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경제 위기라는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속에서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 위기 이전 대학생과 이후 대학생의 돈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으며, 이 연구 결과는 IMF 경제 위기라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개인은 돈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돈에 대한 태도 측정을 위해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나(Furnham, 1984; Lim & Teo, 1993; Yamauch & Templer, 1982), 돈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Goldberg & Lewis, 1978; Rubinstein, 1980; Bailey & Lown, 1992에서 재인용).

여러 연구들(박은아, 1994; 백은영·정순희, 1998; 허경옥, 1997)에 의해 인용된 Yamauch와 Templer (1982)의 돈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돈에 대한 태도를 권력-위세(power-prestige)의 측면, 절약(retention), 안정감(security)측면으로 나눈 후 이를 다시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돈을 힘이나 성공의 척도(power)로 보는 것, 돈에 대한 인색함(retention), 돈을 불신하는 것(distrust), 권력-

지위의 상징을 기반으로 한 질적인 측면(quality), 돈에 대한 불안, 걱정(anxiety) 등이 그것이다.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와의 관계를 논의한 박은아(1994)는 돈에 대한 태도가 현시적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람직한 금전 사용행동을 유도하는 태도는 돈을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이며,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태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감정의 충족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였다.

돈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가계의 저축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한 허경옥(1997)은 돈을 감정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의 경우는 고수익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며, 인색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사금융 보유액이 많았고, 돈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집단은 은행예금에 저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돈에 대해 불안한 태도를 지니는 집단은 보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백은영과 정순희(1998)는 돈을 감정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에서 충동적, 과시적, 체면 중시 태도가 보인다고 하고, 돈을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은 근검 절약하는 태도를 가지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유형은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인적자원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Yamauch 와 Templer(1982)의 돈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요인에 치중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행동적 측면을 보완하여 폭넓은 돈에 대한 신념과 행동을 측정하려 한 Furnham(1984)은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척도(MBBS)의 도구 구성을 위해 60개의 항목들을 조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6개의 요인 즉, 강박적 태도(Obsession), 권력(Power), 돈에 대한 신중한 태도(Retention), 보수적인 태도(Conservative), 불충분(Inadequate), 노력의 댓가(Effort)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박적 태도를 지니는 것은 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며, 돈을 권력으로 보는 태도는 돈을 이용해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태도이고, 돈에 대해 인색한 것은 돈을 쓸 때 극도로 자제하거나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적인 태도는 돈에 대해 안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말하

며, 돈에 대한 불충분함은 돈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돈이란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urnham(1984)의 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Bailey & Gustafson, 1986; Bailey & Lown, 1992; Bailey 등, 1994; Medina 등, 1996; Whihelm 등, 1993; 김정훈·정혜정, 1996)중에서 Wilhelm 등(1993)은 돈에 대한 태도를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강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 둘째,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 셋째, 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 넷째, 과시를 위해 돈을 사용하고 이를 힘으로 인식하는 사람, 다섯째,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여섯째, 안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재정적인 만족감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비교문화적 관점을 제시한 연구(Bailey & Lown, 1992; Bailey 등, 1994; Medina 등, 1996; Wilhelm 등, 1993; 김정훈·정혜정, 1996)중에서 Bailey & Lown(1992)은 미국과 영국의 성인들은 돈에 대해서로 다른 인식을 하며, 이는 각 나라의 정부조직, 계층구조, 교육체계, 금융체계 차이로 인해 미국인들보다 영국인들이 돈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더 광범위하게 인지한다고 하여 문화에 따라 돈 관련 태도와 행동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김정훈과 정혜정(1996)의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Bailey와 Lown(1992)의 결과와 비교할 때,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과 호주 성인들보다 강박적인 성향이 높았고, 지출 경향이 높았다. 돈에 대한 폐쇄적 태도는 한국 대학생들이 낮았으며,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열등감은 미국 성인들보다는 낮았으나 호주 성인들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Yamauch와 Templer(1982), Furnham(1984)의 돈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이후 Lim 과 Teo(1997)는 이들의 문항들을 총합, 보완하여 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돈에 대한 태도를 8가지로 나누었다. 즉 강박적 태도(Obsession), 권력, 힘(Power), 금전관리(Budget), 능력-업적(Achievement), 평가(Evaluation), 불안-걱정(Anxiety), 신중함(Retention), 인색함(Non-Generous) 등의 8개 요인이 그것이다. Obsession은 개인의 돈에 대한 강박적 사

고, 선입견을 말하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다. Power는 돈을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원천이며,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태도를 의미하며, Budget은 개인의 저축 습관, 예산관리 능력을 반영하고, Achievement는 개인의 재산이 그 사람의 능력, 업적, 성공의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다. Evaluation은 개인이 돈을 쓰는 것을 평가의 척도로 보거나 타인과 비교의 척도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교는 개인이 갖고자 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으로 나타난다. Anxiety는 개인이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을 말한다. Retention은 돈을 극도로 신중히 사용하거나 돈을 소비함에 불안하고 돈을 소비하는 것에 죄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Non-generous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자선 행위를 함에 인색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Furnham의 MBBS scale(60개 항목)을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관련 변수

1) 성별

성차에 의한 돈에 대한 태도를 제시한(Bailey & Gustafson, 1986; Furnham, 1984; Lim & Teo, 1997; Wilhelm 등, 1993) 연구에서 Bailey와 Gustafson(1986)은 Furnham의 도구를 이용하였는데, 돈에 대한 태도 6개 요인 중 4개의 요인이 성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금전에 대한 태도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Wilhelm 등(1993)은 노력 여하에 따라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태도는 남성들에게 특히 중요하고, 재정복지와 금전에 대한 태도의 객관적 척도로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남성들의 경우 돈을 쓰는데 있어 죄책감을 덜 가질수록 재정만족도는 증가하고 여성들은 돈으로 재화를 살 수 있다고 느끼는 태도가 재정만족도를 증가시키며, 남성들은 강박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돈에 대한 인지를 더 많이 하였다.

Furnham(1984)은 남성보다 여성이 돈에 대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각을 한다고 밝혔고, Lim과 Teo(1997)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돈을 평가의 의미로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Gresham과 Fontenot(1989)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돈에 대해 권력/권위(Power/Prestige), 불신/분노(Distrust/Anxiety), 삶의 질(Quality) 태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Medina & Gresham, 1996에서 재인용).

홍은실(2001)의 연구에서도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성(性)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학생들은 비교적 건전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남학생들은 즐거움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화폐 태도 유형을 분석한 백은영과 정순희(1998)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돈을 감정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 경제적 위기

Tang(1993)은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내적인 가치, 준거 체계, 문화, 사회에서의 경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돈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위기가 가정 생활 및 소비 수준의 변화 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braham(1965)은 돈이 결핍되면 안전감에 위협을 느끼며, 공허감,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Lim과 Teo(1997)의 연구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돈을 평가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Reddy(1987)는 스스로를 부자 혹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데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Gellerman(1963)은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이 개인의 돈에 대한 반응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Lim & Teo에서 재인용).

Danes와 Stumme(1995)의 연구에서는 가게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는 가게에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가게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며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줄어든 소득을 어

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경제적인 조정 작업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강이주·성영애, 1999에서 재인용). 그러나 곡인숙 등(1999)의 연구에서는 IMF 체제 이후 가족 관계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의견 차이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가족 결속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MF의 경제 위기는 절대적인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비 지출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며, 소득 감소를 경험한 가계는 그 위기의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느껴 절감 노력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고(강이주·성영애, 1999), 소연경(2000)의 연구에서는 IMF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복지수준의 감소가 더 큼을 지적하였다.

서정희와 홍순명(2000)의 연구에서는 IMF 경제 위기가 개인과 가계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음식물 소비 지출과 빈도까지 감소시킬 정도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MF 관리 체제 이전과의 비교를 통해 신세대들의 소비 행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송순영, 1999)에서 신세대들은 소비 지출 행태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 풍부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소비 행태의 변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절약 소비를 행하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IMF 관리 체제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인 경험에 따라 돈을 쓰는 태도나 행동, 대처 전략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들의 돈 관련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원광대학교 대학생들을 1995년과 2000년 같은 질문지에 의해 조사하였다. 표집은 대상들의 연령과 전공 등에 나타나는 편중을 배제하기 위해 전학년이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95년 389명(여학생 202명, 남학생 187명), 2000년 112명(여학생 72명, 남학생 40명)의 질문지가 최종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에 이용된 질문지는 Furnham의 MBBS Scale(60개 항목)을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53개 항목의 질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 첨가되었는데 1995년과 2000년 질문지에서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문항들은 같았으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들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집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53개 항목의 태도 문항들을 4개 요인으로 축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 전체와 여학생, 남학생들의 1995년과 2000년의 태도와 행동을 t-test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95년 조사대상)

(2000년 조사대상)

변인	여 (n=202)	남 (n=187)	전체 (n=389)	변인	여 (n=72)	남 (n=40)	전체 (n=112)	
연령	20.60세	22.66세	21.59세	연령	19.34세	20.78세	20.15세	
월 평균 용돈	130,235원	151,168원	140,159원	월 평균 용돈	198,704원	177,254원	186,520원	
성장 지역				신용 카드	있다	15.5%	31.9%	24.4%
					없다	82.8%	68.1%	74.0%
					전혀 없다	26.3%	19.2%	22.3%
					시간제	38.6%	63.0%	52.3%
일출 해본 경험					전일제	22.85%	8.2%	14.6%
					시간제	12.35%	9.6%	10.8%
					시간제 & 전일제			
농촌	15.8%	14.7%	15.5%					
중소 도시	53.0%	47.3%	50.3%					
대도시	31.2%	38.0%	34.3%					

1>과 같다.

조사대상의 평균 연령은 1995년 21.59세, 2000년은 20.15세였다. 1995년의 조사대상 분석 결과, 월 평균 용돈은 14만1백5십9원이었고, 남학생들의 용돈이 여학생에 비해 약 2만원 가량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장지역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았고(50.3%), 농촌이 가장 적었다(15.9%).

2000년 조사대상의 경우, 월 평균 용돈은 18만6천5백2십원이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난 경험은 시간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2.3%), 신용카드를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74.0%).

IV. 연구결과

1. 돈 관련 태도와 행동의 영역 구성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관련 문항들은 단계적 탐험분석결과 요인 적재량 .45와 상대적 적재량의 차이가 최소 1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요인간 신뢰도가 적은 문항과 요인이 한 요인만 묶이는

것은 제외하고 4개의 요인 구조를 얻었다. 이들 4개의 하위 요인들은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51.21%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Furnham의 연구(강박적 태도, 권력, 절약적 태도, 안정감, 불충분함, 노력 여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음)에서 얻어진 요인 구조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Furnham의 연구에서 6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 분산이 35%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는 최종 요인 분석 결과에 의한 변수들이 요약되어 있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16%로 나타났으며, 4개의 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 요인은 돈을 사회적 힘으로 인식하는 측면을 말하며, 돈을 이용해 타인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인 2는 분산 설명도가 13.4%로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돈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로서 강박적 경향을 의미한다. 요인 3으로 설명되는 분산은 11.5%이며, 이 요인은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금전관리 태도로 명명할 수 있다. 요인 4로 설명되는 분산은 10.1%이며, 돈을 계획 없이 감정의 충족을 위해 지출하려는 태도로서

(표 2)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요인 분석 결과

문항내용	권력·힘	강박적 태도	금전관리	유희적 태도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위협하는 무기로 돈을 사용한다.	.673			
돈을 경멸하고, 돈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이 자주 있다.	.743			
친구들 또는 배우자(애인)와 돈 문제로 잘싸운다.	.702			
돈이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14		
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737		
내가 아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		.525		
자주 돈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상을 한다.		.556		
언제 무슨 일이 닥칠 지, 현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			.697	
돈을 빌리지 않는다.			.497	
돈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운다.			.684	
무엇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기록한다.			.704	
필요하지 않았더라도 세일이거나 값이 내리면 그 물건을 산다.				.545
즐겁게 살기 위해 돈을 쓴다.				.790
다른 사람에게보다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더 잘 쓴다.				.522
설명력	16.079	13.415	11.557	10.145
총 설명력	51.215			
Cronbach's Alpha	.641	.581	.593	.487

유희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신뢰도는 각각 권력·힘 .641, 금전관리 .593, 강박적 태도 .581, 유희적 태도 .487이었다.

2.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전반적인 경향

IMF 경제 위기 전후 전체 대학생의 돈 관련 태도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전반적으로 돈 관련 태도와 행동의 값이 높아졌다. 돈을 사회적 힘으로 생각하는 권력·힘 과 강박적 태도와 같은 인식적 태도의 변화량이 금전관리와 유희적 태도와 같은 돈에 대한 실제적 태도의 변화량보다 작았다. 그 중에서 변화량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은 유희적 태도(+1.26)이었고, 금전관리(+0.63)순이었다.

3.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성별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IMF 경제 위기 이전(1995)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남녀 별로 분석한 결과, 권력·힘과 강박적 태도에서 남녀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표 4), 남학생들은 강박적 태도(M=4.04)와 권력·힘(M=2.23)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은 돈에 대해 강박적이고,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남학생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남자는 돈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여자는 돈을 교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선행 연구(Rudmin, 1990; Tang,

〈표 3〉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변인	1995	2000	t	변화량
	M(SD)	M(SD)		
권력·힘	2.06(.97)	2.52(1.30)	3.44***	+0.46
강박적 태도	3.85(1.22)	4.14(1.09)	2.40***	+0.29
금전관리	4.08(1.54)	4.71(1.20)	4.59***	+0.63
유희적 태도	3.08(1.17)	4.34(1.44)	8.53***	+1.26

***p<.01

〈표 4〉 IMF 경제 위기 이전(1995년) 남녀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변인	남(n=187)	여(n=202)	t
	M(SD)	M(SD)	
권력·힘	2.23(1.00)	1.91(.92)	2.93***
강박적 태도	4.04(1.16)	3.68(1.25)	3.21**
금전관리	4.01(1.61)	4.14(1.49)	.03(n.s.)
유희적 태도	3.08(1.13)	3.08(1.20)	-.80(n.s.)

p<.05, *p<.01, n.s.: 유의하지 않음

〈표 5〉 IMF 경제위기 이후(2000년) 남녀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변인	남(n=40)	여(n=72)	t
	M(SD)	M(SD)	
권력·힘	2.55(1.43)	2.50(1.23)	.19(n.s.)
강박적태도	4.18(1.08)	4.12(1.11)	.25(n.s.)
금전관리	4.59(1.26)	4.78(1.67)	-.79(n.s.)
유희적태도	4.23(1.44)	4.41(1.45)	-.65(n.s.)

n.s.: 유의하지 않음

1993)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2000) 대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남녀 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4. 남녀 대학생의 경제 위기 전후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IMF 경제 위기 전후 여학생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4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이중 경제 위기 이후 4개 영역 중 가장 큰 변화량을 보인 것은 금전관리 태도(+0.91)이었고, 유희적 태도(+0.79), 권력·힘(+0.64), 강박적 태도(+0.18) 순 이었다. 금전관리 태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현재의 경제적 곤란과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금전 관리 행동에 대해 요구하게 되고 실행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여학생들의 유희적 태도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김정훈(2002)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대생들은 신세대 그룹으로서 소비 욕구가 다

른 세대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권력·힘, 강박적 태도의 수준이 소폭 증가한 것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IMF 이후 중산층의 기반이 약화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부 격차로 인한 소득불균형 확대로 인해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돈이 성공의 척도이자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 사회풍조의 한 단면이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태도 및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들의 경제 위기 전후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차이 분석 결과, 강박적 태도를 제외한 3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7). 가장 큰 변화량을 보인 것은 유희적 태도(+1.06)이었고, 그 다음으로 금전관리 순(+0.75)이었다. 유희적 태도의 점수(M=4.44)에 비해 금전관리의 점수(M=4.78)가 높기는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량을 비교해볼 때 유희적 태도의 변화량(+1.06)이 높았다. 이것으로 남학생들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 욕구 충족과 충동성 등과 같은 감정적인 원인으로 인한 비합리적 소비 행위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 6〉 IMF 경제 위기 전후 여자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변인	1995	2000	t	변화량
	M(SD)	M(SD)		
권력·힘	1.91(.92)	2.55(1.43)	2.71***	+0.64
강박적 태도	4.00(1.13)	4.18(1.08)	2.34**	+0.18
금전관리	3.68(1.25)	4.59(1.26)	1.78*	+0.91
유희적태도	3.44(1.04)	4.23(1.44)	5.33***	+0.79

*p<.10, **p<.05, ***p<.01

〈표 7〉 IMF 경제 위기 전후 남자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변인	1995	2000	t	변화량
	M(SD)	M(SD)		
권력·힘	2.23(1.00)	2.50(1.23)	1.69**	+0.27
강박적 태도	3.77(1.15)	4.12(1.11)	.67(n.s.)	(+0.35)
금전관리	4.03(1.16)	4.78(1.17)	4.23***	+0.75
유희적 태도	3.35(.98)	4.44(1.45)	7.01***	+1.06

p<.05, *p<.01, n.s.: 유의하지 않음

따라서 남학생들이 IMF 이전에 비해 돈에 대한 지출을 즉흥적, 비계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IMF 경제 위기 전후의 대학생들의 돈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위기가 개인의 돈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원광대학교 남녀 대학생들로서 1995년 389명(여학생 202명, 남학생 187명), 2000년 112명(여학생 72명, 남학생 40명)이 조사되었다. 조사 도구는 Furnham의 Money Beliefs and Behavior Scale(MBBS)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5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 및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권력·힘, 강박적 태도, 금전관리, 유희적 태도 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IMF 경제 위기 이전(1995)과 이후(2000) 전체 조사 대상자들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해 볼 때, 경제 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유희적 태도이었고, 그 다음은 금전관리 순이었다. 즉 경제 위기 이후 남녀 대학생들의 유희적 태도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대학생들

이 소비를 확연하게 줄이거나 절제하는 움직임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송순영(1999)의 연구에서도 신세대인 대학생들은 IMF 체제의 영향을 덜 받고 상당히 풍부한 소비 생활을 영위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IMF 경제 위기 이전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돈에 대해 강박적이고, 돈을 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사례수가 적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성별 차이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학생들의 경우는 금전관리행동의 수준이 IMF 경제위기 이후 상당 수준 높아졌으며, 그 변화량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컸다. 이는 가계관리자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남학생들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돈에 대한 유희적 태도가 가장 높아졌는데, 이는 돈에 대해 신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Tang (1993)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있는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에 대해 덜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2000년 조사 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 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Part-time 등을 통해 돈을 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중 80.8%를 차지했다. 즉 부모의 용돈을 받아서 쓰는 학생보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용돈을 조달한 학생이 많았고, 이는 소비 혹은 기타 필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용돈 외의 다른 경로

를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굳이 절약하거나 절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현재 가계관리자나 가계부양책임자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풍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돈에 대한 인식을 “모으는 개념”에서 “쓰는 개념”으로 변화시켰었는데 대학생들이 경기 회복이 되면서 소비 풍조의 확산으로 인해 돈을 감정적으로 계획 없이 소비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과소비나 무절제, 충동에 의한 소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념, 가치, 절제 등을 인식시켜 주는 소비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돈에 대한 태도 및 행동과 사회경제적 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파악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성, 동기요소 등 심리적인 면을 추가, 보완해서 질문지를 정교하게 구성한다면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 의한 돈 관련 태도와 행동의 차이까지도 면밀히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 대상 모집에서 같은 대학생들 추적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연구상의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학생 그룹의 성향을 파악하는데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경제 위기,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참고문헌

- 강이주·성영애(1999). 가계 소득 감소 경험 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 연구*, 10(2), 71-83.
- 곽인숙 등(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 IMF 관리 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김정훈(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정혜정(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 MBBS 적용 및 비교 문화적 관점. *원대논문집*, 32(2), 521-535.
- 두경자(1999). IMF 관리 체제 이전·이후의 가계 소비 수준 회복 정도와 영향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87-97.
- 백은영·정순희(1998). 도시 가계의 화폐태도 유형과 지출행동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3), 47-60.
- 서정희·홍순명(2000). 대학생의 식비와 음식점 이용 빈도가 음식물 소비 빈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문제연구*, 23.
- 소연경(2000). 도시 가계의 소득 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송순영(1999). 신세대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보고서*.
-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IMF체제 전후의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
- 허경옥 등(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 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홍은실 등(2001). 여자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 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사용 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Bailey, W.C., & Lown, J.(1992). Counting the Coins: Across Cultural Evaluation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ACCI*, 111-116.
- Bailey, W.C., Johnson, P., Adams, C., Lawson, R.J., Williams, P.K. & Lown, J. M.(1994).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Using Data from Three Natio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78-185.
- Furnham, A.(1984). Many sides of the coin: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 95-103.
- Lim, V.K.G., & Teo, T.S.H.(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ndergraduates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69-386.

- Medina, J. F., Saegert, J., & Gresham, A.(1996). Comparison of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Attitudes Toward Money. *The Journal of Affairs*, 30, 124-135.
- Rudmin, F.W.(1990). German and Canadian data on motivations for ownership: Was Pythagoras right? In Goldberg, M.E., Corn, G., Pollar, R.W.(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for Research*, Ann Arbor, MI, 176-181.
- Tang, T.L.(1993). The meaning of money: Extension and exploration of the money ethic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 93-99.
- _____(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97-202.
- Titus, P., Fanslow, A. & Hira, T.(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8.
- Wilhelm, M.S., Varcoe, K., & Fridrich, A.H.(1993). Financial satisfaction and assesment of financial progress: Importance of money attitud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81-198.
- Yamauchi, K.T., & Templer, D.I.(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